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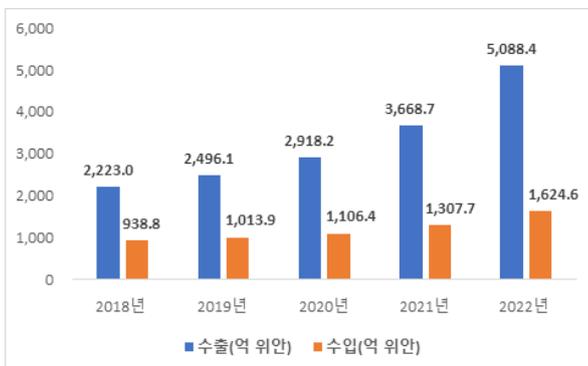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 전화 : 86-10-6505-2671/3
 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1 中 시진핑 장시성(江西省) 산업시찰... 장강 경제벨트 발전 추진 강조

- 10월 12일, 시진핑 주석은 장시성(江西省) 산업시찰에서 녹색발전,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‘장강 경제벨트(长江经济带: 상하이·장쑤·안후이·장시·저장·후베이·후난·쓰촨 등 11개 성·시)’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
- 시 주석은 장강 경제벨트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생태환경 관리 강화를 강조. 특히 중점 분야 오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수자원, 대기 및 토양 오염 예방 및 통제를 강조함
- 또한 시 주석은 장시성은 △과학기술 인재 유치 △핵심기술 난관 극복 △산업망 및 공급망 추진 △제조업 핵심 경쟁력을 강화 △디지털 경제 및 실물경제의 융합 △신흥 산업 건설 추진 등으로 장시성 경제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음
- 한편, 장시성 통계국에 따르면 2022년 장시성 연간 상품 무역 수출입 총액은 전년 대비 34.9% 증가한 6,713억 위안(약 124조원)을 기록. 이중 수출은 5,088억 4,000만 위안(약 92조 원), 수입은 1,624억 6,000만 위안(약 30조 원)으로 전년 대비 각각 38.7%, 24.2% 증가

2018-2022년 장시성 화물무역 수출입 추이



출처: 장시성 통계국

2022년 장시성의 주요 수출 대상국(지역)

No	국가(지역)	수출(억 위안)	증감률 (%)
1	미국	725.3	9.2
2	아세안	1,123.3	70.1
3	EU	592.8	24.6
4	중국홍콩	453.7	30.3
5	베트남	277.3	41.7
6	한국	310.1	83.2
7	인도	252.1	63.6
8	일본	212.0	38.7
9	말레이시아	176.4	64.8
10	인도네시아	111.0	30.3
11	중국대만	66.6	△1.5

출처: 장시성 통계국

자료원 : 신화망
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779559139413062242&wfr=spider&for=pc>

<http://tjj.jiangxi.gov.cn/module/download/downfile.jsp?classid=0&showname=江西省2022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.pdf&filename=6279f7cc9e464bc3ace4229dee52e8cc.pdf>

2 中, '시진핑 문화 사상' 용어 첫 등장... 중국 문화분야 강화

- 10월 7일~8일, 베이징에서 개최한 전국선진사상 문화공작 업무회의에서 '시진핑 문화 사상(习近平文化思想)'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제시하며 관련 업무 지시를 내림
- '시진핑 문화 사상'의 취지는 중화민족 현대 문명 건설을 목표로 삼아 자신감을 가지고 개방과 포용, 혁신을 견지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전파하고 언론의 영향력과 공신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함
- 또한 중국의 우수 전통문화의 창의혁신을 촉진하며 중국 문화사업과 관련 산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
- 한편, 중국 인민대학교 국가발전전략연구원 관계자는 '시진핑 문화 사상'은 중국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중화민족 부흥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분석함

자료원 : 중국신문망

<https://www.chinanews.com.cn/gn/2023/10-09/10091431.shtml>

http://www.china.com.cn/opinion2020/2023-10/12/content_116742620.shtml

3 中, 〈중국 비자 사전 예약제〉 전면 폐지

- 10월 18일, 싱하이밍(邢海明) 주한 중국대사는 10월 23일부터 중국 비자 사전 예약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
- 해당 조치에 따라 한국인들은 사전 예약 없이 중국비자신청서서비스센터에 방문해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기간은 2일(근무일)로 시간이 대폭 단축됨
- 앞서 중국은 올해 1월에 복수 비자, 도착비자 발급 업무 및 경유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했고, 3월에 관광비자, 지역별 비자 면제 및 코로나 이전의 복수 비자 입국을 재개했으며, 8월 이후 지문 채취 면제·입국 전 코로나 검사 취소·비자 신청서 간소화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하여 외국인 중국 비자 신청에 편의를 제공함
- 싱하이밍 대사는 추석 및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 관광객의 한국행 항공권 및 호텔 예약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며, 한국 정부는 올해 2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

자료원 : 주한중국대사관

https://mp.weixin.qq.com/s/iuLp3_zYUFZekzrGCr785w

4 中 국무원, 〈특허집약형 산업 추진계획〉 발표

- 10월 10일, 국무원은 〈특허집약형 산업 추진계획(2023-2025년)〉《专利转化运用专项行动方案(2023—2025年)》을 심의 통과함
 - * 특허집약형 산업(专利密集型产业) : 정보기술산업으로 일부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서비스산업, 스마트 제조산업, 바이오 제약산업, 신형 소재산업 등을 가리킴
- 동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△특허 성과의 전환과 활용에 유리한 제도와 장려 정책을 완비 △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여 혁신 성과를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 △2025년에 이르러 특허집약형 산업 부가가치가 중국 GDP 비중의 13%를 차지하도록 목표치 설정 △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특허집약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일련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 등임
- 한편, 국가 지식재산권국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특허 밀집형 산업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17.9% 증가하여 14조 3천위안(약 2,500조 원)을 기록함

자료원 : 환구시보
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779540582343303625&wfr=spider&for=pc>

5 中, 〈의료기기 분류규칙〉 개정안 발표

- 10월 10일,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의료기기 분류를 규범화하기 위한 〈의료기기 분류규칙〉《医疗器械分类规则(修订草案征求意见稿)》관련 개정안을 발표하여 2023년 11월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
- 동 규칙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고 기존 2015년에 발표했던 법규 대비 주요 개정 내용으로 △재활용 수술기구, 인체에 삽입된 수술기구 등에 대해 정비 △‘인체에 접촉하는 기기’에 대해 직접 접촉 및 간접 접촉으로 분류하고 액체나 기체를 통해 환자와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장비도 ‘인체에 접촉하는 기기’로 명확히 규정 △의료용 드레싱(Medical dressings, 수술 상처를 감싸는 데 사용되는 의료용 소재)이 제3종 의료기기에 따라 분류 및 관리되는 경우를 규정 △특정 바이오 재료,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의료기기, 재조합 콜라겐 제품, 나노물질을 함유한 의료기기 등에 대한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한 것 등임
- 한편, 2023년 9월 25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남방의약경제연구소가 발표한 〈2023년 중국 의료기기 산업 발전 보고서〉《2023中国医疗器械产业发展报告》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12% 성장한 1조 3,000억 위안(약 240조 원)을 기록

자료원 : 국가약품감독관리국<https://www.nifdc.org.cn/nifdc/bshff/ylqxbzhgl/gxzqyj/20231010083558787426.html><https://www.smei.net.cn/news/newsDetail.do?newsId=1494>**6 中 국무원, <포용적 금융 발전 추진 조치> 발표**

■ 10월 11일, 국무원은 <포용적 금융 발전 추진 조치>(国务院关于推进普惠金融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)를 발표함

* 포용적 금융(普惠金融) : 영세기업, 농민, 도시 저소득 인구, 빈곤층, 장애인, 노인 등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가리킴

- 동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△영세기업,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을 확대 △중장기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혁신의 전문화 메커니즘을 수립 △보험 회사가 실버산업에 참여하도록 지원 △디지털 위안화 연구개발 시범을 안정적으로 추진 △금리 시장화 개혁을 강화 △금융서비스 플랫폼 발전을 규범화하고 반독점 경쟁을 강화하는 것 등임

자료원 : 국무원https://www.gov.cn/zhengce/content/202310/content_6908495.htm**7 中, <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> 초안 발표**

■ 9월 28일,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국가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<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정(초안)>(《规范和促进数据跨境流动规定(征求意见稿)》)을 발표함

- 동 법규는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됐고 개인정보 해외반출 시 안전 심사기준에 대해 규정함. 구체적인 내용으로 △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외국으로 반출 시 중국 사이버정보 보안 부서에 데이터 해외반출 안전 심사를 받도록 명시 △무역, 학술 교류, 마케팅 등 활동에서 발생한 데이터 해외반출 중 개인정보를 미포함한 경우 데이터 해외반출 안전 심사 불필요 △온라인 해외 쇼핑, 해외 송금, 해외 플랫폼을 통한 항공권 및 호텔 예약 등으로 외국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, 데이터 해외반출 안전 심사 불필요 등임
- 한편, 최근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지난 2022년 5월에 <국경간 데이터 이동 안전 평가 방법>(《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》), 2023년 2월에 <개인정보 해외반출 표준약관>(《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》)등을 통해 국경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

자료원 :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http://www.cac.gov.cn/2023-09/28/c_1697558914242877.htm

8 中 상무부, <국가별 무역 가이드북> 발표

- 10월 15일, 중국상무부는 광저우에서 개최되는 중국 최대 수출박람회인 제134차 캔톤페어에서 중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<국가별 무역 가이드북>(《国别贸易指南》)을 공식 발표함
- 동 가이드북은 미국, 한국, 일본 등 중국 주요 무역 대상국의 전반적인 경제 및 무역 현황을 소개했고 <한국 무역 가이드> 부분에서 한국의 주요 산업으로 반도체, 자동차, 정보통신기술, 조선, 제철, 석유화학 등을 선정함
- 앞서 지난 해관총서가 발표한 2022년 중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중 양국 무역액은 3,622억 달러(약 491조 원)로 전년 대비 0.1% 증가한 것으로 집계

자료원 : 중국상무부

<http://cacs.mofcom.gov.cn/article/flfwpt/jyjd/cgal/202310/178292.html>

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756446821294984539&wfr=spider&for=pc>